

대한석탄공사 폐광대비 대체산업 유치

建 議 書

2022. 4. 4.



태백상공회의소

■ 건의요지

- 태백시는 광도 태백으로 각광을 받으며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번영 하였으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이후 지역 산업의 주축이 되었던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이 시행된 지 33년이 되었으나, 현재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며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태백시는 최근 대한석탄공사의 노·사·정 협의회가 결정한 3개 탄광 폐광 결정(2022. 3. 2.)은 지역의 피폐화로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기에, 정부는 대한석공 폐광 이후 더 이상의 인구 유출과 지역산업을 붕괴되지 않도록 대체산업의 조속한 마련과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상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중요 DATA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테러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정보자료의 분산 보관 및 관리를 지하화하고 있으므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 이후 대체산업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 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신산업동력확보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광물인 희소금속 티타늄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한국지질연구원이 태백과 삼척, 봉화 일대의 면산층에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한 **▲티타늄광산 개발사업**을 조속히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광산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강원남부 4개 시군의 폐광지역을 포함한 7

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및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산하 전담 기구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청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 지역주민과 지역상공인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국 가행 탄광은 대한석탄공사 3개 탄광(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과 민영 탄광인 경동광업소를 포함하여 4개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으며, 태백시 관내에는 과거 45개 탄광이 있었으나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모두 폐광하고 대한석공장성 광업소 1개 탄광이 남아 있으나, 이마저 지난 3월 2일 노·사·정 협의회에서 2024년 말 폐광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2016년 정부가 석탄공사를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일자리를 잃은 광산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출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태백시는 2021년 12월 기준 인구 4만 844명으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도에 인구 4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석공 노사정협의회에서 계획한 대로 2024년 말 장성광업소가 폐광된다면, 현재 근로 중인 광산근로자 558명과 수 천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떠나게 되어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여 또다시 태백지역은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의 전철을 밟게 되어 피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태백시 경제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는 탈석탄 정책으로 감원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대책과 인원 충원은 하지 않고 감산·감원만을 중용해 사실상 폐광을 유도해 정책적으로 지역을 붕괴되게 했습니다.

■ 전의내용

1. 폐 광도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설립

-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중요 DATA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테러로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2013년 3월 20일 사이버테러 인한 금융권 백업 센터 기능 마비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정보자료의 분산 보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해외 타 국가의 선례¹⁾로 ▲중국 귀주성 텐센트 데이터센터, ▲스웨덴 반호프 데이터센터, ▲노르웨이 Lefdal Mine 데이터 센터, Green Mountain 데이터센터 등이 지하에 운영 또는 설립중에 있으며, ▲대만 시립 황금박물관, ▲일본 나오시마 지중 미술관 등 데이터 외에도 중요 역사자료나 유물 보관을 지하 벙커화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분단국가로 전쟁의 위협성이 존재하는 국가임에도 유사시 자료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1) 폐광시 발생할 문제점과 폐광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의 기대효과

	문 제 점	기대 효과
국 가	국가 중요 자산인 국가기록물의 보관 시스템 부족 국가 재난시 정보 데이터 손실 우려	국가기록물, 공공정보 데이터 등 중요 정보자산의 분산 보관으로 안전한 보관과 관리
	지역 경제발전 불균형과 국가 및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국가 및 공기업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	폐광 후 광산근로자들의 생계 보장 곤란	폐광 후 광산근로자들의 고용승계로 생계 보장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 소멸의 위험	500여명의 상주고용 일자리 창출 및 데이터 가공 처리인력 등 약 3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 인터오션엠에스(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하데이터 구축 사업제안(2018.6)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내 폐광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폐광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 태백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최적지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폐광이후 대체 산업으로 현재에도 많은 대체 산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침체되는 지역에 활기를 찾아 줄 신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태백·삼척 지역 티타늄 광산 개발사업

- 지난 2020년 10월 국민의 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건의한 태백·삼척 지역 티타늄광산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올해 정부의 부존량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승인을 받아 탐광 시추에 사용될 5억원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2)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희유금속탐사 및 활용기술개발’을 실시한 결과 태백과 삼척, 봉화 일원의 태백 면산층에서 희유금속인 티타늄-철 약 2억 2천만톤의 부존량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최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광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0일 광산 개발 전문기업인 (주)경동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고, 내열 및 내식성이 뛰어나 국방, 항공, 의료,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용품의 제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로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힘 이철규 국회의원실 발표자료 참고 (2020. 10.)

- 태백·삼척 지역에서 발견된 티타늄의 함유량은 7.57%(1,000만여톤)로 우리나라 티타늄 100년이상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및 추출기술을 개발한다면 매년 티타늄 수입으로 발생하는 약 7천억의 무역적자를 상쇄하고, 추출 부산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과 국내 제조 티타늄의 유통으로 바이오세라믹 산업, 의료산업, 제조업계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티타늄 광산개발은 과거 무연탄 광산의 활황의 전성기를 또다시 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여 큰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3. 폐광지역 개발청설립

- 강원남부폐광지역 4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 7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7년이 지난 현재도 엄청난 재정지원과는 상반되게 폐광지역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대체산업 부재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직적이고 전문성 없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대부분 사업들이 실패하였거나 적자 누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지난 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이 폐광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속칭 “폐광지역 개발 지원청”을 총리 직속 전담 기구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건의사항

첫째, 폐광을 대비한 대체산업으로 현재 가동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500여명의 상주 인력 등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사업체 유치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계기를 조성하여 주십시오.

둘째, 태백·삼척 지역의 면산층에서 발견된 **티타늄 광산 개발사업**을 국가 경제발전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중요 대체산업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광에 따른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제20대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주요 산업인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리 직속 기구로 "폐광지역개발지원청" 설립**을 건의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폐광지역이 조속히 오지의 변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20대 새 정부의 국가중점 어젠다로 추진**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3가지 건의**를 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호소하오니 특단의 조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